

# Portfilio Galley

기간: 2025.11.05 – 2025.11.06

플랫폼: Web(PC/Mobile지원)

설명: 회사 지원할 때마다 매번 포트폴리오 하나씩 PDF로 첨부하기 귀찮아서 만든 나의 포트폴리오 모음 사이트.  
또 늘어나는 포트폴리오 관리하기 귀찮아서....  
요즘 핫하다는 바이브 코딩 사이트 vercel 미쳤다...

언어: TypeScript

프레임 워크: React, Next.js, Tailwind CSS

IDE&TOOLS: Visual Studio Code

배포: GitHub, Vercel

Vibe Coding: V0

# Portfolio Galley

별첨

포트폴리오 갤러리: <https://portfoliobyangrok.vercel.app/> (내 사이트)

Vibe Coding: <https://v0.app/>

Release: <https://vercel.com/>

참고 자료: [https://youtu.be/gbCOlvC\\_A5c?si=pBmH\\_FLOCu9jNHby](https://youtu.be/gbCOlvC_A5c?si=pBmH_FLOCu9jNHby)

# Portfolio Galley

## 사용자 주요 기능(1 / 1)

### 메인 페이지

- 주인장 메일, 깃 허브, 노션(이력서)로 이동.
- 언어 전환 버튼으로 한국어, 일본어 지원.
- 프로젝트 년도 별로 포트폴리오를 모아 볼 수 있음.
- 프로젝트 이름으로 해당 포트폴리오를 검색 할 수 있음.
- 포트폴리오를 기간 순으로 정렬 할 수 있음
- 포트폴리오 정보(아래)를 한눈에 볼 수 있음.
  - 프로젝트 명
  - 프로젝트 기간
  - 회사명 / 소속
  - 주요 기술
  - PDF다운로드

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

## 어양록의 PortFolio

프로젝트로 이야기하는 개발 여정

✉ yangrokauh@gmail.com

🔗 Visit Yangrok's GitHub

📄 View Yangrok's Resume

KR JP

All 2025 2024 2023

↕

시스템 오퍼레이션 자동화

2025.07-2025.12

페이페이 카드 / 시스템 자동화 팀

Java Spring Boot Oracle My Batis

다운로드

(基幹) 시스템 유지보수

2025.01-2025.06

페이페이 카드 / 공통 그룹

Java Interfarm Oracle Shell Script

다운로드

범용 데이터 집계 시스템

2024.10-2024.12

아시아 정보 시스템 / 신규 시스템 개발 팀

Python Django PostgreSQL Swagger

다운로드

검사치료 워크리스트

2024.02-2024.03

평화이즈 / 인턴

Java JavaScript Oracle X-platfor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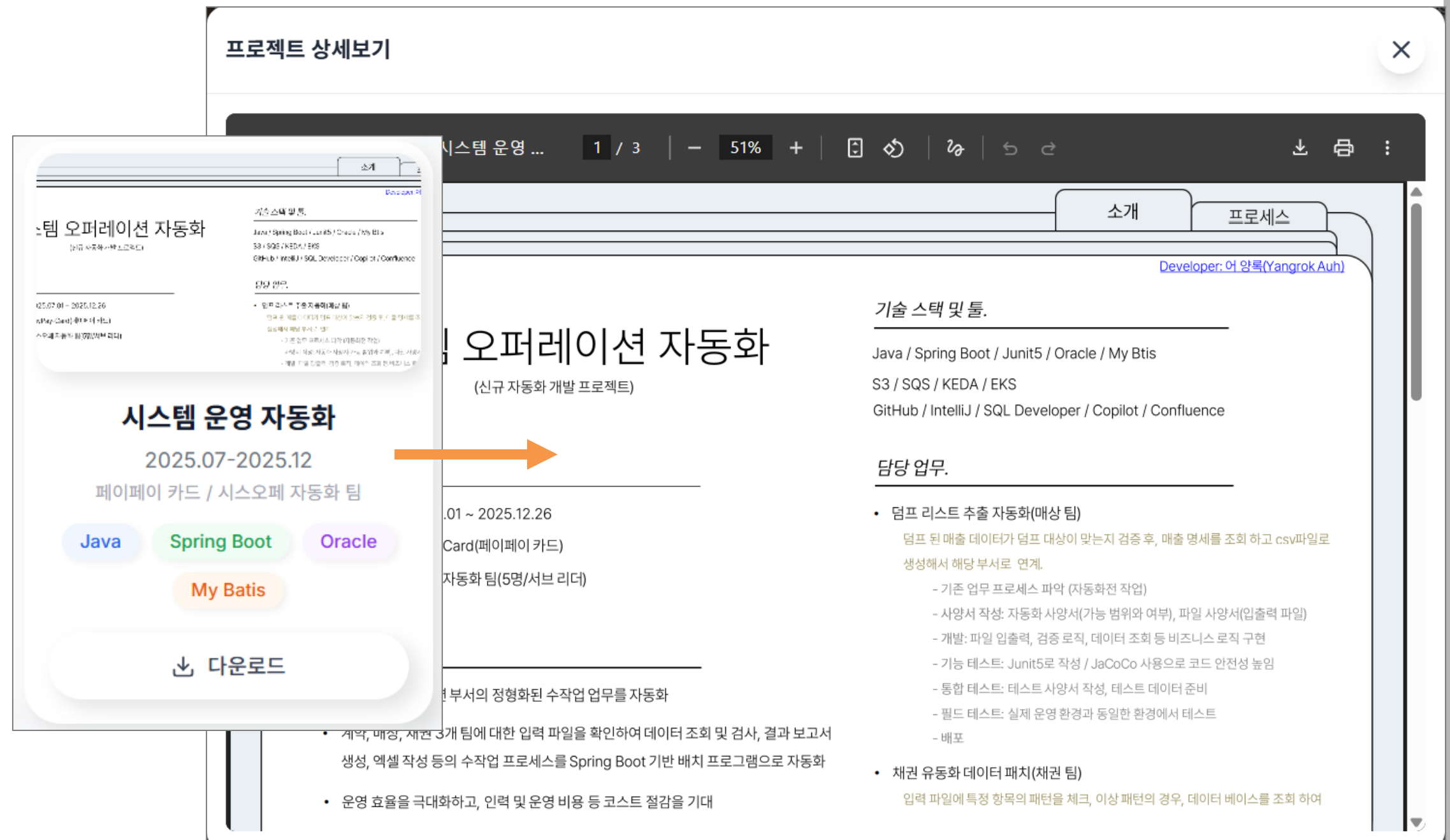
다운로드

# Portfolio Galley

## 사용자 주요 기능(2 / 2)

### 프로젝트 상세보기 팝업

- 메인 페이지에 포트폴리오를 클릭하면 상세 보기 팝업 창 열림.
- 해당 포트폴리오에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.
- 언어 전환 후 클릭 하면 전환된 언어의 포트폴리오가 보임.
- 해당 포트폴리오를 다운 받을 수 있음.
- 포트폴리오를 인쇄 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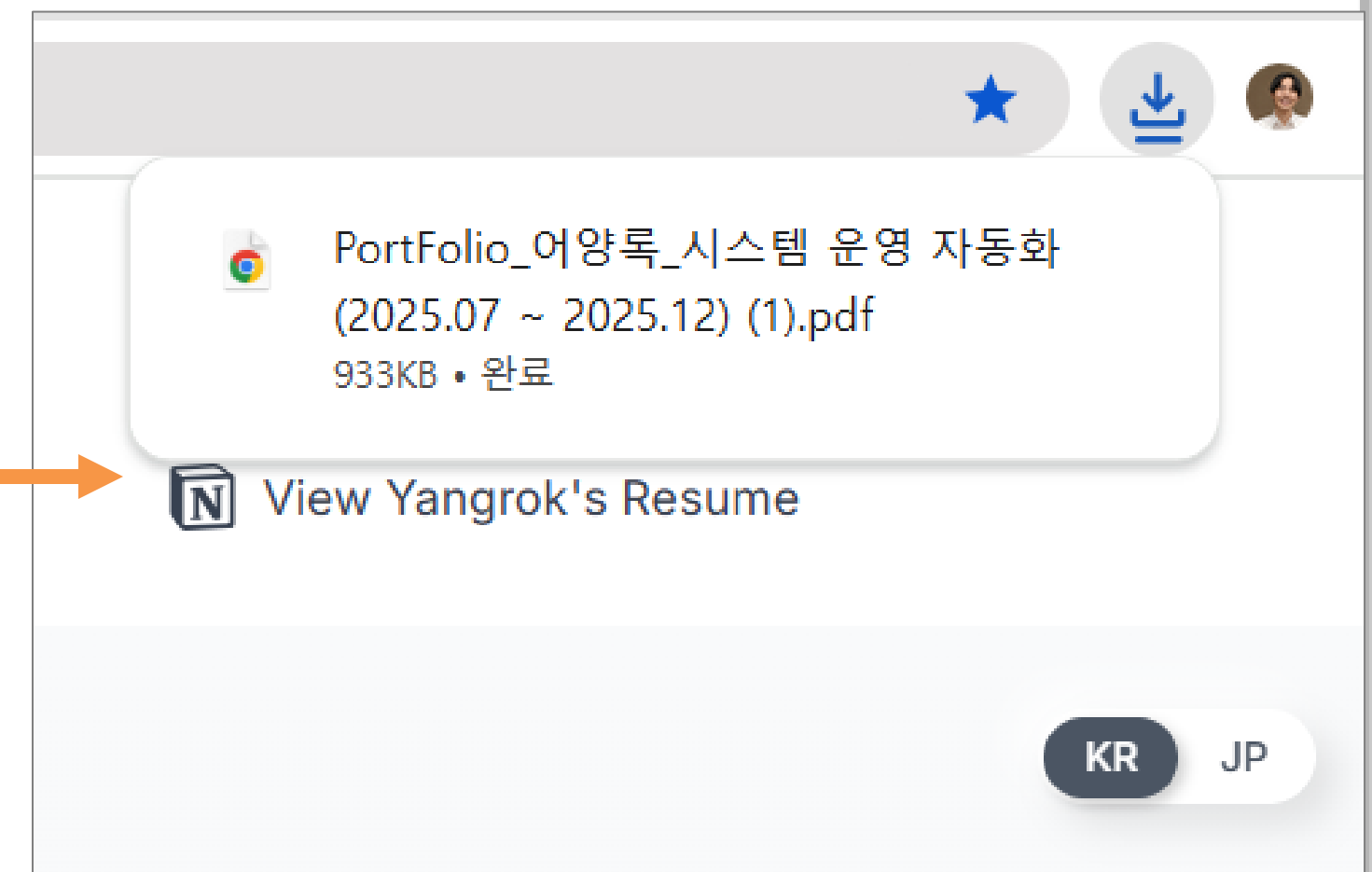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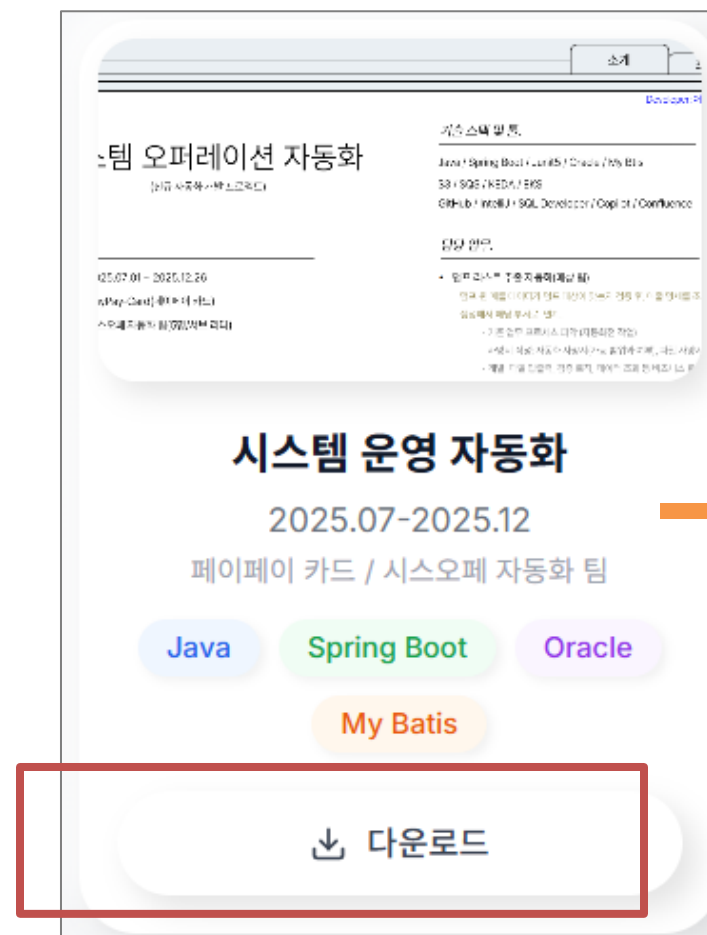


# Portfolio Galley

사용자 주요 기능(3 / 3)

## 포트폴리오 다운로드

- 메인페이지 포트폴리오 카드에 다운로드 버튼으로 다운로드.
- 로컬 PC 다운로드 폴더에 PDF파일로 다운로드 됨.
- 다운로드 된 포트폴리오 파일은 PDF파일 형식.







# Portfolio Galley

피드백

## 반성

- 회사일 이외에도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관심을 가져야 함
- 더 늦기 전에 AI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음
-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
- AI를 쓰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동작 원리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

## 마치며

학창시절 html, css, javascript로 조그마한 웹 페이지를 만들어 본 것 말고는 프론트엔드 영역에는 관심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음.  
사이트를 만들고 싶는데 공부하고 하나하나 만들 자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 고민하던 차에 요즘 핫하다는 바이브 코딩을 해보기로 함.  
V0라는 바이브 코딩 사이트를 통해 전체 디자인과 큰 기능들을 만드는데...와.... 그냥 '미쳤다'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음... 진짜 그냥 미쳤음....  
이제 정말 개발자가 필요한가 싶음....  
AI가 이렇게 까지 발전 했을 줄이야....  
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 짐.



2025.11.08

저 날의 주인공